

미래성장발전 견인 사업 포함, 산업 생태계 혁신 기회 얻다

익산시가 신규사업이 대거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며 사상 처음으로 8천억원 시대를 개막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이번에 포함된 신규사업에는 지역의 미래성장발전을 이끌 사업들이 다수 포함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산업 생태계에 혁신을 불어넣을 기회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가예산 8천억원 시대 개막

8일 정현을 익산시장은 상황실에서 김수홍, 한병도 국회의원, 유재구 시의회 의장과 합동으로 국가예산 확보현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종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800억원 증가한 8,04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예산이 8.9% 증가했고 전북도 예산은 8.7% 증가에 그쳤지만 익산시는 무려 12.4%나 경증 뛰어오른 성과다.

더욱이 익산시는 마지막 국회 예정위 심의단계에서 무려 14개 사업을 증액시키는데 성공하면서 올해 최고의 성과를 거둔 자치단체로 평가받으며 타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피해지원 예산 3조원 편성을 위해 정부예산안에 있던 기존사업에서 5조3천억 원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낸 것이어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신규사업 36개 확보, '4219억원 규모'

내년 확보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은 복지·보건 분야 3,160억원, 농축산 식품 분야 1,931억원, 경제·SOC 분야 1,438억원, 안전·환경 분야 935억원, 문화·관광 381억원, 교육·기타 분야 197억원 등이다.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 신규사업은 총 36개로 첫 시작을 이룰 사업비는 296억원이 확보됐다. 이를 통해 향후 4,219억원대 규모의 재정이 연차적으로 시에 투입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은 신성장동력인 홀로그램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 지원센터 구축사업(22억원, 총사업비 300억원), 장점마을을 을 치유힐링공간과 생태문화 체험의 장으로 탈바꿈하게 될 ▲환경피해 치유회복센터 조성사업(1억원, 총사업비 340억원) 등으로 국회 마지막 날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이어 백제왕도 익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사업(6억원, 총사업비 194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1억원, 총사업비 481억원) 등 규모가 큰 사업예산을 다수 확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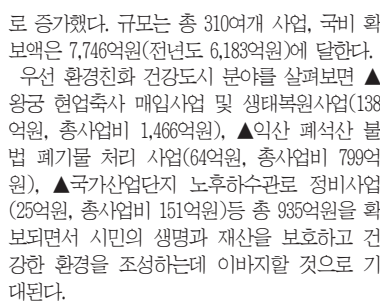
계속 사업비 대거 확보, 추진 동력 마련

불확실했던 계속사업의 예산을 확보해낸 것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지난해 다수 확보한 신규사업 대다수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면서 계속사업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8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정현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수홍·한병도 의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로 증가했다. 규모는 총 310여개 사업, 국비 확보액은 7,746억원(전년도 6,183억원)에 달한다. 우선 환경친화 건강도시 분야를 살펴보면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및 생태복원사업(138억원, 총사업비 1,466억원),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 사업(64억원, 총사업비 799억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5억원, 총사업비 151억원) 등 총 935억원을 확보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할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500만 관광도시 분야는 ▲익산 세계유산탐방 거점센터 건립(24억원, 총사업비 214억원), ▲익산 고도보존 육성사업(87억원, 총사업비 3,419억원), ▲보석박물관 리뉴얼 사업(14억원, 총사업비 100억원) 등 381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백제무왕의 도시를 재현하고 왕도 시민으



로시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게 됐다. 균형발전 경제도시 관련 사업으로 ▲익산국가산단 재생사업(33억원, 총사업비 210억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33억원, 총사업비 300억원), ▲국도27호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129억원, 총사업비 3,500억원) 등 1,438억원이 확보돼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융복합 농식품도시 분야로 ▲국가식품클러스터(푸드파크) 조성(219억원, 총사업비 5,535억원), ▲농식품 원재료 중계공급센터 구축(110억원, 총사업비 195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구축(60억원, 총사업비 250억원), ▲스마트 농산업 벤처·창업 캠퍼스 설치(5억원, 총사업비 209억원) 등 1,93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람중심 포용도시 분야는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1억원, 총사업비 80억원), ▲유전도서관 건립(17억원, 총사업비 82억원), ▲익산시 여성가족회관 건립(3억원, 총사업비 100억원) 사업 등이 확보됐으며 앞으로 총 3,160억원 예산을 투입해 포용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관련 분야에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14억원, 총사업비 146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능성원료은행 구축사업(4억원, 총사업비 150

억원), ▲고용안전 safety belt 구축사업(55억원, 총사업비 400억원) 등 30여개 사업, 총사업비 7,400억원을 확보하면서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노련한 김수홍·정척전문 한병도 '협치의 성과'

이번 성과는 정부예산 편성 단계보다 한발 앞선 익산시의 선제적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 직원이 지난해 9월부터 신규사업 발굴과 사전행정절차를 준비했으며 국가예산 사업발굴 TF팀을 가동하고 중앙부처 동향 파악을 위한 세종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실시간 현장 대응을 해왔다.

무엇보다 국회예산 전문가로서 초선당지 않은 노련함을 갖춘 김수홍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과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내고 정책 전문가로서 정경이 나 있는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의 노력과 협치가 더해져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평가다.

김수홍·한병도 의원은 중앙부처, 기재부, 상임위, 예정위 단계에서 막힌 길을 터주고 핵심 사업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김수홍 의원은 "올해 국가예산은 정현을 시장, 직원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련한 결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를 토대로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 정치권, 전북도, 익산시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국가예산 8천억원 시대를 열 수 있었다"며 "익산의 새로운 10년과 대도약을 향해 나가는데 이번 국가예산이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 정현을 시장에게 듣는다

“불가능 뛰어넘어 거둔 최고의 성과”

정현을 익산시장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해 “김수홍·한병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익산 정치권이 팔팔 뭉쳐 일군 성과”라며 “시민들의 응원과 지역 출신 각계의 지원까지 뒷받침했기에 이번 성과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년도 국가 예산 사업에는 신규사업이 무려 36건이나 담기면서 익산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했다고도 내다봤다.

정 시장은 “국회에서 일부 증액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렵는데 익산시는 국회에서 막판에 14개 사업을 반영시켰고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9건이 포함됐다”며 “정부예산보다 무려 861억원이나 증액한 것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근무 경험 살려 반영단계부터 설득 나서

또한 “정부예산이 8.7% 증액되었고, 전북예산도 8.9% 증액된 것과 비교하더라도 익산시는 무려 12.4%라는 놀라운 증액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다른 자치단체들로부터 축하한다며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기뻐했다.

이번 성과는 정 시장의 집요한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정 시장은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더라도 일정이 잡히면 곧바로 서울로 상경하는 집요함을 보이며 올해에만 중앙부처와 국회를 30여차례 방문했다.

더욱이 정 시장은 중앙부처에서 오래 근무하며 터득한 노하우를 적극 활용했다. 정 시장은 부처 반영단계에서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한 자세한 설명과 설득에 나섰고, 국회로 예산이 넘겨진 이후에는 의원별 상황 파악을 통한 밀착 관계를 맺는 전략을 앞세웠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정 시장은 수많은 의원을 접촉해 현안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최대치로 증액시키는 성과를 일궈냈다.

취임 5년 만에 1,5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 성장세를 보여준 정 시장은 “국가 예산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집행하겠다”며 “두 국회의원과 지역정치권, 지역 출신 인사와 시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